

# 1990년대 “금융자동화”의 문화적 의미\*

## —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금융 투명성의 맥락에서

김한상\*\*

1. 들어가며
2. “자동화” 담론 구축의 맥락
3. 금융자동화의 투명성과 신자유주의 세계화
4. 나가며

###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자동화” 담론이 희망적 미래에 대한 유희적 상상에서 비인간적이고 냉정한 디스토피아에 대한 불안 중심으로 변모하는 분기점을 1990년대, 특히 “금융자동화” 기술이 확산된 시점부터라고 보고 이를 당대 대중서사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고찰한다.

이를 위해 우선 로봇과 컴퓨터에 의한 “자동화”가 한국사회에서 어떻게 담론화되어왔는가를 시기별로 추적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특히 금융과 결합된 자동화를 묘사한 영화들을 중심으로 1990년대에 나타난 자동화 담론의 변모를 분석하였다.

소비 유토피아의 경이와 희열의 대상으로 자동화 기술을 묘사하던 1980년대로부터, 이른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시대정신으로서 투명성을 기술적으로 체화한 금융자동화 앞에서 개개인의 일상이 투명하게 가시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5B5A07042582).

\*\* 아주대학교 사회학과 조교수.

화되는 1990년대로의 전이가 그러한 변화라 할 수 있다.

(주제어: 자동화, 금융자동화, 투명성, 가시성, 익명성)

## 1. 들어가며

최근 재계나 IT산업 등 관련 업계 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큰 영향력을 갖게 되면서 이에 관한 논의가 학계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생명과학, 나노기술 등의 첨단 신기술이 기존의 컴퓨터-인터넷 기반의 3차 산업혁명에 비해 확장되고 가속화된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것이 이 용어를 정의하는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인다.<sup>1)</sup>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러한 이해와 관심 속에서 주목할 부분은 “자동화”가 이 변화의 중심적인 화두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 관련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한 대기업 자산운용사업본부는 “무인화와 서비스 자동화”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업 경쟁력의 기반이라고 밝히고 있으며,<sup>2)</sup>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싱가포르가 “동남아시아에서 4차 산업혁명 적응도가 가장 높”다고 평가하면서 이것이 “디지털 기술과 자동화”에 기반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다.<sup>3)</sup>

그런데 “자동화”에 대한 이와 같은 주목은 기술 발전이 갖고 있는 이중적 전망, 즉 미래를 희망적으로 바꿀 수도 있지만 동시에 불안정하고 궁핍한 것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두 가지 결과의 공존 가능성을 중심으

1)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제4차 산업혁명』, 『IT용어사전』, [http://terms.ita.or.kr/dictionary/dictionaryView.do?word\\_seq=100949-17](http://terms.ita.or.kr/dictionary/dictionaryView.do?word_seq=100949-17) (최종접속일: 2018.7.11)

2) 『4차 산업혁명주도 아시아 기업이 뜬다』, 『한국경제』, 2018.6.27.

3) 『무협 “싱가포르, 스마트국가로 도약”』, 『뉴시스』, 2018.7.8.

로 담론화되고 있다. 일례로 항만 자동화 도입 여부를 두고 부산운항노조와 해양수산부 사이에 이견이 지속되는 가운데<sup>4)</sup> 부산항을 방문한 대통령령이 “자동화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피할 수 없는 추세지만 한편으로는 일자리가 줄지 않겠느냐는 걱정도 있다”고 언급한 것도 볼 수 있다.<sup>5)</sup> 이는 현 시기 “자동화”를 둘러싼 담론이 지닌 사회적 맥락을 보여준다. 각박한 취업 환경 속에 있는 젊은 독자들을 의식해 쓴 듯한 칼럼에서 한 전산통계학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자동화”가 인간노동을 대체해 일자리를 소멸시킬 수는 있지만 그것은 단순 노무보다는 오히려 전문화된 지식노동일 가능성이 더 크다면서 대중적 불안을 달래기도 한다.<sup>6)</sup>

물론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대중성을 얻기 전에도 “자동화”는 희망과 불안을 동시에 품은 것으로 담론화되어 왔다. 인간의 노동이 투입되기에 위험한 산업의 대안<sup>7)</sup>이나 정교한 공정을 빠른 속도로 이뤄내는 편리성의 총체<sup>8)</sup>로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한편, 인간노동을 대체하여 취업 기회를 앗아갈 수 있는 잠재적 위협<sup>9)</sup>이거나 인간의 이성으로 통제되지 않는 기계 시스템이 유발할 수 있을 디스토피아적 미래의 징후<sup>10)</sup>로 비관적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본 연구는 기술 발전으로서의 “자동화”에 대한 이와 같은 양가적 전망이 비교적 최근에 생겨난 것이라 보며, 그 배경에는 자동화의 한 부문으로서 “금융자동화” 기술의 확산이 있다고 가정한다. 물론 과학기술 발전이 가져올 미래에 대한 상반된 전망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오랫동안 반

- 
- 4) 『中 무인항만을 가다 ④ '실적 없는 자동화' 난제』, 『이데일리』, 2018.5.22.  
 5) 『문 대통령, 부산항 근로자와 오찬』, 『연합뉴스』, 2018.3.16.  
 6)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오해』, 『제민일보』, 2018.6.28.  
 7) 『무인기 드론, 산업현장 일꾼으로 펄펄 난다』, 『조선일보』, 2015.6.3, B6면.  
 8) 『스시, 국수, 쿠키 척척... '로봇 셰프' 시대 성큼』, 『문화일보』, 2015.4.16, 17면.  
 9)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 빼앗는다?』, 『한겨레』, 2015.1.26, 21면.  
 10) 『킬러 로봇 등장에 전쟁마저 '자동화'되나』, 『경향신문』, 2015.5.24, 비즈앤라이프.

복되어온 것이기는 하다. “자동화” 역시 1947년 미국 포드 자동차회사에서 “automation”이라는 신조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이래 그 효과의 장단점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자동화”에 노동자들의 대량 실직이나 특정 직종의 소멸과 같은 부정적 미래상이 기입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자동화 기술이 실제 제조업 부문과 일상생활에 보급되기 시작한 1970년대 중반 이후로 이를 둘러싼 담론이 확연히 증가한 바 있는데, 그 대중화가 특히 두드러졌던 1980년대의 경우 오히려 자동화가 가져올 편리성과 효율성이 강조되었던 것이다.<sup>11)</sup> 자동화가 가져올지 모를 디스토피아는 현실의 편리한 자동 기계들의 고성능 앞에서 다소간 비현실적인, 혹은 먼 훗날의 이야기로 여겨졌던 것일 수도 있겠다. 그에 비해 4차 산업혁명 대응이 정부의 정책과 제로 제시되는 현재 시점에서 자동화가 보여주는 암울한 전망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또 이를 실제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인구도 상당하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1990년대, 그리고 “금융자동화”에 주목한다. 1980년대가 “소비 수준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소비문화가 적지 않게 성장”한 ‘향유’의 문을 연 시대이자<sup>12)</sup> “대중들의 소비로부터 삶의 표준이 도출”되는 시대였다면,<sup>13)</sup> 1990년대는 그러한 향유를 이어받은 시대인 동시에 이른바 “세계화”라는 정언명령이 생산과 소비 모두를 규정짓던 시대, 그리고 후반의 경제위기를 통해 그 명령이 폭력적으로 관철되던 시대였다고 할 수 있다. 자동화와 관련된 기술과 담론도 이 두 시기를 거치면서 고도화, 다변화되어왔는데, 1980년대에 일상의 소비 공

11) 김한상, 『테크노피아 - 1980년대 자동화 담론과 새로운 이동체계』, 『역사비평』 통권 113호, 2015년 겨울, 237-241쪽.

12) 주은우, 『금지의 명령에서 향유의 명령으로: 자본주의와 한국사회의 문화변동에 대한 해석적 시론』, 『한국사회학』 제48집 제5호, 2014, 75쪽.

13) 조원광, 『한국 소비사회의 등장과 미시권력의 변화』, 『한국사회학』 제48집 제1호, 2014, 155쪽.

간 속으로 들어왔던 자동화 기술이 소비 뿐 아니라 개개인의 경제생활 일반을 규정하는 금융의 영역으로 본격적으로 확산된 것이 1990년대였던 것이다. 본 연구는 1990년대의 그러한 시대적 조건이 특히 “자동화” 담론에 대한 대중적 반응의 변화를 가져온 배경이라는 인식에서 시작한다. 이를 위해 우선 이 담론이 구축되어온 역사적 맥락을 고찰하고자 하며, 이를 바탕으로 1990년대 “금융자동화”를 둘러싼 대중 서사의 구체적인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 2. “자동화” 담론 구축의 맥락

이른바 외래 개념으로서의 “자동화(automation)”는 한국사회에서 어떻게 담론화되었으며 변모해 왔는가? 이에 대한 역사적 고찰의 필요성에서 1990년대로부터 다소 떨어진 과거에서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 2-1. 신조어 “automation”의 번역과 소개

미국 포드 자동차회사의 제조 부문 부사장 델 S. 하더(Del S. Harder)가 1947년 처음 사용한 용어 “automation”의 본래 의미는 디트로이트식 기계화 공정이었다.<sup>14)</sup> 따라서 초기에는 “mechanization,” “automatization” 등의 용어와 엄밀하게 구분이 되지 않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sup>15)</sup> 그러나 1950~60년대의 컴퓨터 보급과 함께 점차 이 용어는 기계화(mechanization)

14) G. Terborgh, *The Automation Hysteria*,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1965, p.1.

15) G. Terborgh, *The Automation Hysteria*,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1965, pp.1-2.

와 구분되기 시작했으며, 단순한 기계의 발달이 아니라 인간의 지식을 습득한 기계에 의한 인간노동의 대체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sup>16)</sup> 즉, 이 신조어의 발생지인 미국에서조차도 “automation”을 정의하는 데에는 다양한 이견이 존재했으며, 그 정의는 각 시기별 조건에 따라 담론적으로 생산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이유에서 해당 용어 “automation”이 국내에 수입, 번역된 시점을 특정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sup>17)</sup>

1955년 10월, 미 연방 제84차 의회 첫 번째 회기의 경제보고 양원 합동 위원회에 속한 경제안정에 관한 부속위원회에서 “자동화와 기술변화 (Automation and Technological Change)”라는 공청회가 개최되었다.<sup>18)</sup> 이것은 1947년 포드사에서 “automation”을 사용하기 시작한 이래 미국 정부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이 용어를 의제화한 것으로, 1950년대 중반에 이르러 자동화가 제조업을 비롯한 주요 각 산업의 관심사로 떠오른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즈(New York Times) 아카이브를 기준으로 볼 때, 1947년부터 1952년까지는 “automation”이 기사 제목에 들어간 기사가 단 한 편도 없었으나 1953년 2편, 1954년에는 11편으로 조금씩 생겨나

16) J. Diebold, *Automation: The Advent of the Automatic Factory*, New York, Van Nostrand, 1952; D. de Wit, *The Shaping of Automation*, Hilversum: Verloren, 1994.

17) “자동화” 용어의 초기 용례는 기계에 의한 업무처리를 의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추후에 “automation”의 번역어로 정착하게 되지만, 이미 1920년대 후반부터 언론에서 사용된 사례를 볼 수 있다. 1929년 1월 4일자 동아일보는 자동교환식 전화접속법 (automatic telephone exchange)을 소개하면서 “자동화”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우편사무 대개혁 체신성급년도신계획』, 『동아일보』, 1929.1.4, 1면 이와 같은 용례는 “자동화(自動化)”라는 용어가 “automation”이라는 개념의 소개 이전에 이미 쓰이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automation”이 신조어로서 사용되기 시작한 이후에도 상당기간 동안 국내에서는 “automation”의 번역어로 “자동화”라는 용어를 썼다가보다는, 1929년 기사와 같은 맥락에서 기계적 시스템의 도입을 의미하는 용어로 쓴 것으로 보인다.

18) U.S. Congress, “Automation and Technological Change”, In *Hearings, Subcommittee on Economic Stabilization of the Joint Committee on the Economic Report, 84th Cong. 1st Sess.*, Washington: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55.

다가 1955년에 이르면 71편으로 급증하였고 1956년과 57년에 각각 61편, 62편의 기사가 발행된 것을 알 수 있다.<sup>19)</sup> 이와 같은 언론의 증대된 관심과 각종 관련행사의 개최는 여전히 정의하기 모호한 단계에 머무르던 이 신조어가 뚜렷한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음을 보여준다.

미국에서 “automation” 용어의 이와 같은 관심 증대는 한국에 이 개념이 새롭게 번역, 소개되는 계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더의 “automation”이 본격적으로 국내 언론에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은 1955년부터이다. 동아일보는 7월 24일 기사에서 “오오토메이숀”이 “현 미국사회 일반에 무슨 괴물과도 같이 커다란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이를 “인간의 두뇌 대신 전자두뇌(인공두뇌)를 가지고 자동기계를 움직이는 새로운 자동적 생산과 사무처리 법식”으로 정의한다.<sup>20)</sup> 이듬해 6월 조선일보에 실린 한 외신 기사는 영국 스탠더드모터(Standard Motors)사가 2천 6백여 명의 종업원을 해고하였는데 이것이 “오토메이숀 계획에 대한 금월초의 2주일간의 파업이 있는 후에 행”해진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sup>21)</sup> 같은 신문 9월 기사는 미국 노동운동 지도자 조지 미니(George Meany)의 9월 4일 미국재향군인전국대회 연설을 인용하면서 “원자력에 의해 배가된 ‘오토메이숀’은 우리들 모든 사람의 생활을 변동시킬 것이다”는 전망을 전하고 있다.<sup>22)</sup>

반면 1956년 6월의 한 기획기사는 아직 “자동화”가 번역어로 완전히 정착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데, 가령 “오오토메이숀이라는 말은 그 의미내용이 펍 막연하여 어떤 사람은 기계화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19) ProQuest Historical Newspapers, *The New York Times* <http://search.proquest.com/hn-pnewyorktimes/> (최종접속일: 2017.8.28)

20) 『오오토메이숀이란 무엇?』, 『동아일보』, 1955.7.24, 4면.

21) 『자동기계의 첫 희생』, 『조선일보』, 1956.6.1, 2면.

22) 『노동력 계속 필요하다. 미국 미니씨 “오토메이숀”에 언급』, 『조선일보』, 1956.9.6, 2면.

생각하고 있어 자동화, 반(半)자동화도 ‘오오토메이숀’이라고 한다. 또 어떤 사람은 ‘로보오트’를 ‘오오토메이숀’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언급은 여전히 “자동화”가 “automation”의 번역어로서는 부족하다는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다.<sup>23)</sup> 경향신문의 1959년 기사는 “오토메이숀—한 말로 말해서 ‘자동조업의 기계군’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sup>24)</sup> 같은 신문이 이듬해 7월 기사에서는 “기계 하나하나의 자동화부터 시작해서 전 공정을 자동화해가려는 ‘오토메이숀’에의 길”이라는 언급에서 볼 수 있듯이 “오토메이숀”을 개별 “자동화”보다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시스템으로 이해하기도 한다.<sup>25)</sup> 경향신문은 1964년 4월 아놀드 토인비(Arnold J. Toynbee)와의 인터뷰를 소개한 연재기사에서 “오토메이션”을 “노동의 기계화”와 병기하기도 했다.<sup>26)</sup>

1959년 출판된 교양도서 『우주시대의 과학』은 “오토메이션”의 정의에 대해 좀 더 진전된 인식을 담고 있다. 서울사대부고 이풍기 교사가 집필한 “잇따른 대 발명” 쪽지에 실린 글에 따르면 “오토메이션”은 “학문의 연구와 동시에 전자공학이 급진적으로 발전되어 모든 인간의 작업을 기계가 하는” 것이며 “자동조정능력을 가진 기계를 사용하는 것”을 일컫는다고 적고 있다.<sup>27)</sup>

이후에도 “자동화”가 “automation”의 엄밀한 번역어로 사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1970년대까지도 이 두 개념은 동의어로 인식되지 않았다.

23) 『오오토메이숀(2)』, 『동아일보』, 1957.6.29, 4면.

24) 『제2산업혁명 일으킬 “오토메이숀”』, 『경향신문』, 1959.4.13, 2면.

25) 『“오-토크메이숀”에의길』, 『경향신문』, 1960.7.6, 4면.

26) 『아놀드 토인비 박사가 본 내일의 세계 (3)』, 『경향신문』, 1964.4.4, 3면.

27) 학원사 편집국, 『우주시대의 과학』, 학원사, 1959, 344-345쪽.



## 2-2. 1980년대 “자동화”의 대중화와 소비 유토피아

그렇게 볼 때 “자동화”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automation” 혹은 “오토메이션”과 동의어로 인식되고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초라고 할 수 있다. 그 전까지는 “automation”이 주로 공장에서의 특정한 생산 공정에 한정되어 사용되거나 아직 국내에 도래하지 않은 미래 전망을 기술하는 데 사용되어 온 반면, 80년대부터는 일상생활과 소비의 영역에서 실제로 마주하게 된 기술적 진보를 지칭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필자의 선행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1970년대 후반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고층화 및 소비산업의 발전과 맞물려 엘리베이터, 자동문, 자동판매기, 에스컬레이터 등 자동기계가 일상생활에 침투해 들어오게 되었다.<sup>28)</sup>

자동화 기술의 대중화와 함께 “자동화” 명칭이 “오토메이션”의 동의어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오피스오토메이션(OA)”, “홈오토메이션(HA)”이 “사무자동화” 및 “가사자동화”로 번역되면서 언론에 자주 보도되면서이다.<sup>29)</sup> 이 두 가지 자동화 체계는 공장을 벗어나 사무공간과 가사공간을 인공지능과 자동기계를 통해 편리하게 만들 수 있다는 중간 계급적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었으며, “자동화”라는 용어는 “오토메이션”이 주는 모호한 어감을 극복하고 보다 친밀한 번역어를 제시하기 위해 동의어로 채택된 것이라 볼 수 있다.

1980년대 언론에서 자동화는 상당히 대중적인 주제였던 것으로 보인다. 발전된 컴퓨터 기술을 통한 자동제어 시스템의 상용화는 자동화를

28) 김한상, 『테크노피아 - 1980년대 자동화 담론과 새로운 이동체계』, 『역사비평』 통권 113호, 2015년 겨울, 236-239쪽.

29) 『한국형 정보시스템 개발 시급』, 『매일경제』, 1981.10.23, 8면; 『제일제당 사원 능력 향상 위해 “3·0운동”』, 『경향신문』, 1981.10.28, 5면; 『“제3의 물결” 광기술 산업』, 『경향신문』, 1982.7.12, 5면; 『서기 2000년 미리 가본 미래의 세계 <50> 사무자동화』, 『동아일보』, 1981.6.23, 9면.

곧바로 향유할 수 있는 상품으로서 홍보하는 기사들도 자주 볼 수 있게 한다. 『한은(韓銀)에도 사무자동화 바람』, 『빌딩관리에도 자동화 바람』, 『쓰레기처리에도 자동화 바람』, 『미(美) 빌딩가의 새물결 ‘자동화 바람』, 『안방까지 파고드는 자동화 바람』<sup>30)</sup> 등 “자동화 바람”을 제명에 넣은 일련의 경제신문 기사들이나, “컴퓨터가 빨래하고 밥짓고... ‘가사자동화 시대’ 눈앞에”, “서류 캐비닛 줄고 단말기 키보드 등장”, “키보드만 누르면 단숨에 문서 배달”, “가정주부들 집안일서 해방”, “어렵고 힘든 일 알아서 ‘척척’”<sup>31)</sup> 등 자동화가 가져올 미래 사무와 가사의 편리성을 강조하는 기사들을 자주 볼 수 있다.

앞 절에서 본 것처럼 “automation”의 번역어로서 “오토메이숀” 혹은 “자동화”라는 용어를 국내에 소개하는 각 언론기사의 논조는 조금씩 상이한데, 이는 자동화가 가져올 미래에 대한 전망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이 개념이 고안된 미국에서 1950년대 중반부터 나타나는 특징이다.<sup>32)</sup> 그러나 국내에 이 개념이 수입, 번역되어 정착하는 과정은 미국

30) 『한은(韓銀)에도 사무자동화 바람』, 『매일경제』, 1984.1.16, 2면; 『빌딩관리에도 자동화 바람』, 『매일경제』, 1984.10.12, 8면; 『쓰레기처리에도 자동화 바람』, 『매일경제』, 1984.11.23, 6면; 『미(美) 빌딩가의 새물결 ‘자동화 바람』, 『매일경제』, 1985.7.12, 6면; 『안방까지 파고드는 자동화 바람』, 『매일경제』, 1985.9.17, 9면.

31) 『컴퓨터가 빨래하고 밥짓고』, 『경향신문』, 1985.7.23, 10면; 『“자동화 물결” 밀려온다. 첨단 경영 현장 <1>』, 『동아일보』, 1984.10.29, 5면; 『“자동화 물결” 밀려온다. 첨단 경영 현장 <3>』, 『동아일보』, 1984.11.2, 5면; 『가정주부들 집안일서 해방』, 『매일경제』, 1988.3.9, 9면; 『어렵고 힘든 일 알아서 ‘척척’』, 『매일경제』, 1988.10.21, 24면.

32) 뉴욕타임즈에 1955년 2월 게재된 한 기사는 “산업의 자동화가 대량 실업을 낳을 것이라는 주장은 ‘악랄한 프로파간다’라고 말한 미국 제철회사(United States Steel Corporation)의 벤저민 페어리스(Benjamin F. Fairless) 당시 회장의 주장을 보도하고 있다. “Fairless Upholds ‘Automation’ Aims”, *The New York Times*, Feb. 12, 1955, p.27. 이와 같은 재계의 의견에 이어 다음 달에는 당시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가 “(산업 장치들에 의해 노동자들이 대체될 것이라는) ‘자동화에 대한 공포는 과장된 것’이며 “자동 기계에 밀려난 노동자들은 경제 신장을 통해 일을 얻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President Deplores Fear of Automation”, *The New York Times*, Mar. 17, 1955,

포드사의 디트로이트식 공정과 같이 생산부문에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노동자들의 불안이 증대되면서라기보다는, 향후 국내 기술이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하면 향유하게 될 편리한 미래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한국사회에서 “자동화”는 생산의 맥락에서 인간 노동을 대체하는 디스토피아적인 기술로 담론화 되었다기보다는 소비의 맥락에서, 소비자로서의 개인이 향유할 수 있는 풍요와 편의의 기술로 담론화된 것이다. 이는 특히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에 이르는 시기동안 실질적으로 소비 공간에 보급된 자동화 기술들의 확산과 맞물려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sup>33)</sup> 이것은 이후 이 용어를 둘러싼 담론이 실질적인 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떻게 그러한 변화를 긍정하는 근거로 작동했는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 2-3. 1990년대의 시대정신으로서 “금융자동화”

1990년대에 “자동화”와 관련하여 급격하게 용례가 증가한 것은 “금융자동화” 담론이다. 1994년 1월 25일 한국은행이 주최한 외환금융부문 무역업무 자동화시스템 개통식을 보도한 한 기사는 “금융-무역 업무 자동

p.17. 이와 같은 미 재계와 정계 주요 인사들의 발언은 “자동화”가 가져올 변화에 대한 대중의 불안과 공포가 상당히 컸음을 반증한다. 앞서 언급한 1956년 조선일보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자동화로 인한 실업의 위기에 처한 서구 노동자들은 파업을 감행하기도 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화는 대량실업으로 이어지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자동기계의 첫 희생』, 『조선일보』, 1956.6.1, 2면. 이는 “자동화는 새로운 자유를 목표로 한다”는 청사진과 대조된 면모로서, 초기부터 배태된 상반된 전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3) 김한상, 『테크노피아 - 1980년대 자동화 담론과 새로운 이동체계』, 『역사비평』 통권 113호, 2015년 겨울, 239-241쪽.

화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고 있다.<sup>34)</sup> 전산망을 통해 전국 각 은행의 컴퓨터 단말기 간 연결을 가능케 하는 이와 같은 자동화시스템의 도입은 이전 시기와는 질적으로 다른 변화가 자동화 기술을 통해 도래하고 있었음을 말해 준다.

물론 세계사적 차원에서 볼 때 “금융자동화” 기술은 보다 오래 전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파르도-게라는 개별적으로 존재하던 경향들이 금융자동화라는 하나의 합류점을 찾기 시작한 것이 1950년대 중후반이며, 돈을 부치고 지불하는 부문에서의 금융자동화의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19세기 말의 일람표 작성기계 발명까지도 금융자동화라 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sup>35)</sup> 물론 금융자동화 역시 여타의 자동화와 마찬가지로 1960년대 컴퓨터의 도입과 함께 확산되기 시작했으며, 이를 통해 지불 업무 뿐 아니라 정보 보급에 있어서도 큰 혁신을 가져왔다.<sup>36)</sup>

파르도-게라는 20세기 후반 “금융의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 of finance)”를 거치면서 신뢰도 높은 독점적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의 구축을 희망하는 초국적 금융기업들이 증가한 것이 1980년대 후반 금융자동화가 재편되기 시작하는 배경이었다고 말한다.<sup>37)</sup>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한국사회도 1990년대부터 “금융자동화”의 확산에 동참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국내에 처음 도입된 대표적인 금융자동화 무인 기술로 주목할 것은 현금자동입출금기(automated teller machine, ATM)이다. 물론 ATM 이전에도 무인 은행 서비스가 일부 존재해 왔는데, 1979년 12월 조흥은행

34) 『금융-무역 업무 “자동화 시대”』, 『동아일보』, 1994.1.26, 10면.

35) J. P. Pardo-Guerra, “Financial Automation, Past, Present, and Future”, *The Oxford Handbook of the Sociology of Finan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p.571, p.575.

36) J. P. Pardo-Guerra, “Financial Automation, Past, Present, and Future”, *The Oxford Handbook of the Sociology of Finan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pp.574-578.

37) J. P. Pardo-Guerra, “Financial Automation, Past, Present, and Future”, *The Oxford Handbook of the Sociology of Finan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p.575.

을 필두로 국내 은행들은 현금자동지급기(cash dispenser, CD) 온라인 네트워크를 운영하기 시작했다.<sup>38)</sup> 1988년 11월부터는 CD공동이용망을 전국 규모로 확대하여 이를 통해 은행 고객들은 이 기계가 설치된 은행 전국 지점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게 되었고,<sup>39)</sup> 그 이듬해인 1989년부터는 CD에 현금 입금 기능을 추가한 ATM 서비스가 국민, 외환, 조흥은행 등 주요 은행들에 의해 도입되기도 했다.<sup>40)</sup> 그러나 24시간 무인 자동화 은행 서비스가 도입된 것은 1990년대부터라 할 수 있다. “무인은행”으로도 불린 이 서비스는 1990년 7월 조흥은행 명동지점이 국내 최초의 “자동화코너”를 설치하면서 시작되었다.<sup>41)</sup> 같은 해 10월에는 상업은행이 같은 명동 지역에 연중무휴 24시간 ATM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365일 코너”를 설치, 개장했다.<sup>42)</sup> CD와 ATM의 전체 설치대수는 가파르게 증가하여 1990년 전국 총 5,150대에서 1993년에는 11,550대가 되었다.<sup>43)</sup>

당시의 한 신문기사가 지적했듯이, 이와 같은 무인 은행서비스 도입의 증가와 유행은 “금융시장 개방을 앞두고” 국내 은행들이 준비하는 차원의 것이었다고 이해해야 한다.<sup>44)</sup> 은행감독원이 은행경영합리화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1991년 각 은행들의 경영합리화 추진실적을 조사한 결과에서 “업무전산화” 부문의 지표로 CD 및 ATM 설치대수와 점포당 보유대수가 포함된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은행 서비스의 자동화가 도입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sup>45)</sup>

38) 『경제단신』, 『동아일보』, 1979.12.1, 2면; 『“어서 오십시오” 말하는 현금자동지급기 등장』, 『경향신문』, 1982.3.20, 4면.

39) 『현금인출기 공동이용 전국 은행에 확대』, 『매일경제』, 1988.11.4, 15면.

40) 『예금도 지급도 모두 무인자동화』, 『동아일보』, 1989.1.11, 7면.

41) 『“무인(無人)은행” 국내에 첫선』, 『매일경제』, 1990.7.20, 4면.

42) 『은행 서비스업무 강화』, 『경향신문』, 1990.10.31, 6면.

43) 『신 금융시대 온다. 달라진 풍속도』, 『매일경제』, 1994.1.4, 16면.

44) 『은행 서비스업무 강화』, 『경향신문』, 1990.10.31, 6면.

이것은 파르도-게라가 언급한 초국적 금융기업들의 네트워크 구축 요구 맥락과 상통한다. 즉, “금융자동화” 담론이 당대의 시대정신으로서 신자유주의 지구화, 특히 그 지역화된 언어로서 김영삼 정부가 명명한 “세계화” 담론과 동일선상에서, 혹은 그 구체적인 실현의 도구로서 제시 되었음을 보여준다.

### 3. 금융자동화의 투명성과 신자유주의 세계화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초기의 “자동화”는 특정한 가치판단이 담기지 않은 용어로서 외래의 “automation” 개념을 소개하는 용어로 정착 하였으며, 이것이 1980년대 소비 공간에서의 자동화 기술과 결합되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획득해왔다. 1990년대는 그와 같이 긍정의 대상으로 자리 잡은 “자동화”가 세계화의 맥락 속에서 구체적으로 삶을 규정하는 실체로서 다가오는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금융자동화가 가져온, 혹은 금융자동화로 표상되는 신질서가 가져온 변화의 문화적 의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 3-1. 금융자동화 시스템과 인간 이동체계

1995년 영화 <돈을 갖고 튀어라>는 금융 부분에서 도입, 확산된 새로운 자동화 기술이 어떻게 인간의 이동을 교정했는지를 보여준다. 가망 없는 삶을 사는 실직자 천달수(박중훈 분)가 우연히 자신의 휴면계좌가 익명의 해커들에 의해 돈세탁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이

45) 『제일·외환·지방 4개銀 경영합리화 “우수” 판정』, 『경향신문』, 1992.2.19, 6면.

영화는 시작된다. 예비군 훈련을 대신 참석하면서 불규칙하게 돈을 벌던 달수는 한 의뢰인의 요청으로 어쩔 수 없이 대금 5만 원을 오래 묵혀둔 통장으로 이체해서 받기로 한다. 은행에 가는 길에 그는 외상술값을 갚아야 하는 접대부 김은지(정신경 분)를 마주치고 두 사람은 함께 은행에 들어선다. 달수는 은행을 이용해본지 무척 오래된 관계로 ATM을 이용하는 법을 모르고 이는 은지와 대조를 이룬다. 마침내 달수가 자신의 통장 거래내역 갱신에 성공하자 두 사람은 그의 계좌에 백억 원이 입금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 두 사람은 잠깐 고민한 후에 통장 내역에 오류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3억 원을 인출하고 곧장 은행을 떠난다.

달수가 ATM을 앞에 두고서 겪는 기술적 어려움, 그리고 그의 통장에 찍혀 나오는 정보의 기계적 정확성은 모두 당대 한국인들이 이 자동기계를 대하며 처음 겪었을 신체적 경험,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생산된 특정한 정동(affect)을 반영한다. 이 기계의 즉각적이면서도 차별한 작동은 어떠한 협상도 허용하지 않는다. 달수는 은지에게 ‘외상’으로 술을 샀지만, 그와 같은 지불 지연 전략은 이 기계 앞에서는 발휘할 수 없는 것이다. 개개인은 이 컴퓨터 자동기계의 움직임이 만들어내는 리듬에 자신의 신체적, 그리고 정동적 반응을 맞추어야만 한다.

신자유주의적 시각적 주체성(optical subjectivity)의 형성 역사를 다룬 연구에서 헤이워드<sup>46)</sup>는 이처럼 ATM의 도입으로 인해 생겨난 고객과 은행 창구직원 사이의 변화된 관계, 특히 그 속의 “공포와 희망”을 “제도화된 형태의 비인격화(institutionalized form of depersonalization)”라고 지칭한다.<sup>46)</sup> 압축적 근대의 흐름이 그 시민들로 하여금 시대에 뒤쳐지지 않도록 자기규율로 뛰어들게 해온 한국 사회에서, 행동의 교정과 신체의 규

46) Mark Hayward, “ATMs, Teleprompters and Photobooths: A Short History of Neoliberal Optics”, In *New Formations* 80/81, 2013, pp.205-206.

을은 감정의 변화에 선행한다. 달수가 ATM 앞에서 망설이자 은지는 “은행 처음 와봐?”라며 핀잔을 주는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은 이동체계의 변화는 금융 제도의 개혁 과정을 통해 가속되기도 했다. 다음 절에서 다룰 금융거래실명제 도입 후 1년간 일상 속의 변화를 기록한 한 기획 기사는 은행을 찾을 때마다 신분증을 항상 지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CD 및 ATM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급증하고 있음을 적고 있다.<sup>47)</sup> 컴퓨터화된 금융 시스템의 정확성에 부합하기 위한 실명 확인 절차는 그 절차의 복잡성을 생략하기 위해 대인창구 대신 자동화기기를 택하는 방식으로 이용자들의 동선을 재배치한 것이며, 이로 인해 은행 창구의 비인격화가 가속화된 것이다.

### 3-2. 금융실명제와 신자유주의적 과제로서 금융 투명성

〈돈을 갖고 튀어라〉에 나타난 하층계급 주인공들의 갑작스러운 행운은 당시 급격하게 진행된 금융 개혁 앞에 선 부유층의 처지에 대한 풍자이자, 이러한 개혁이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도래하던 신자유주의의 국제적 기준으로서 이른바 ‘재무적 투명성’과 어떻게 연결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설정이기도 하다. 1993년 8월 12일 오후 7시, 당시 대통령 김영삼은 특별 담화를 통해 그날 오후 8시를 기해 금융거래실명제를 긴급명령으로 실시한다고 발표했다.<sup>48)</sup> 이 명령은 그 발행 이후 2개월 이내에 모든 자산을 실명으로 전환해야 하며, 실명을 증명할 수 없는 계좌로부터의 모든 인출 거래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었다.<sup>49)</sup> 이 같은 명령의 불시 집행은 정치적 접근을 통한 개혁이 어려운데다 점진적 이행

47) 『생활 속의 실명제 1년』, 『한겨레』, 1994.8.9, 7면.

48) 『금융실명제 전격 실시』, 『한겨레』, 1993.8.13, 1면.

49) 『금융실명제 전격 실시』, 『한겨레』, 1993.8.13, 1면.



을 통한 개혁의 비효율성을 쉽게 예측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sup>50)</sup> 2개월의 실명 전환 기간 동안 3천만 원 이상의 인출이 발생할 경우 은행들은 국세청에 보고해야 했고, 차명에서 실명으로 전환한 계좌의 보유 금액이 5천만 원이 넘을 경우 자금 출처 조사를 받아야 했다.<sup>51)</sup> 영화에서 통장의 실명 소유주 달수에게 조력자인 한 인물(명계남 분)이 하는 대사는 이와 같은 개혁 조치로 변모한 환경과 그에 대한 대중적 인식을 잘 말해준다. “실명제 아냐. 이 세상에서 이 돈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너 하나, 천달수.”

한편 그의 통장으로 이체된 백억 원의 실제 주인은 은퇴한 정치인으로 묘사되는데, 그를 연기한 배우의 외모나 대사 등 많은 부분에서 그는 전두환, 혹은 신군부 세력을 연상케 한다. 당시 전두환은 대통령 재직 당시 1천8백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수사가 촉구되는 상황이었다.<sup>52)</sup> 앞서 달수가 곤경에 처했던 ATM 시스템의 기계적 정확성은 이처럼 금융실명제의 투명성과 결합하여 ‘돈세탁’을 하고자 하는 비리 정치인들의 곤경과 연결된다. 다시 말해, 개혁되어야 할 이른바 ‘구악(舊惡)’으로서의 비리 정치인은 컴퓨터화된 금융 시스템의 정확성 앞에서 무력하게 서서 달수와 같은 정동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1990년대 중반에 나온 다른 영화들에서도 이처럼 컴퓨터화된 금융 시스템의 비가역성과 단호함에 대한 정동적 반응을 볼 수 있다. <장미의 나날>(1994)의 주인공을 위협하던 악역으로서 남편은 호주의 한 은행에 차명으로 넣어둔 잔고 일체가 실명 소유주에 의해 인출되어 파산할 위기에 처하자 좌절한다. 1995년작 <총잡이>에는 당시 새롭게 상용화된 휴대용 신용카드 단말기가 등장하는데, 주인공은 술집 주인이 외상값을

50) 표학길, 『진정한 국제화에 사활걸린 한국경제』, 『한국논단』 11월호, 1993, 51-52쪽.

51) 『금융실명제 전격 실시』, 『한겨레』, 1993.8.13, 1면.

52) 『“전두환씨 비자금 1천8백억 조성”』, 『한겨레』, 1995.10.7, 2면.

받기 위해 직장으로 신용카드 단말기를 들고 오자 아연실색하고 만다. 은행 시스템의 컴퓨터화는 또한 컴퓨터를 역이용해 비리 정치인들을 에워싸는 ‘의적’ 인물에 대한 대중적 상상도 자극했다. 〈채널 식스나인〉(1996)의 해커들은 한 정치인의 비자금을 추적한 후 주파수 조작을 통해 방송에 해킹하여 이 사실을 폭로한다. 새로 떠오르는 인터넷 기술을 자신을 홍보할 수단으로 보고 흥미를 표하던 이 정치인은 자신의 비리가 폭로되는 텔레비전 화면을 망연자실한 얼굴로 응시한다. 이들 영화가 이처럼 극적인 전개를 통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개선된 금융 시스템이 지닌 기계적 즉각성과 합리성을 마주하는 개인들이 나타내는 정동적 반응이다.

비록 이와 같은 변화가 당대 한국 사회의 국내 정치적 개혁과 밀접한 관련 속에 진행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지점은 이러한 금융시스템의 개혁이 1990년대 한국 금융 시스템을 국제적으로 선호되는 수준으로 변모시키려는 움직임의 일환이었다는 사실이다. 금융실명제의 실명 전환 기간 2개월 종료 직후의 한 글에서 표학길 당시 서울대 국제경제학 교수는 “신경제정책의 성패는 궁극적으로 한국 경제가 앞으로 수년간 ‘진정한 의미’에서의 국제화를 달성할 수 있는가 아닌가 하는 데 달려있다고 판단된다”고 쓰고 있다.<sup>53)</sup> 그의 관점에 따르면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 가져온 투명성과 합리성은 결국 다국적 금융자본이 매끄럽게 순환하는 것을 허용하는, 이른바 국제적 기준에 의해 요구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차명계좌나 각종 낡은 관행들과 같은 구약들은 비단 정치적, 사회적 개혁의 대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장애물이기도 했던 것이다.<sup>54)</sup>

53) 표학길, 『진정한 국제화에 사활걸린 한국경제』, 『한국논단』 11월호, 1993, 54쪽.

54) 이렇게 볼 때 〈돈을 갖고 튀어라〉 보다 5년 앞선 1990년에 나온 할리우드 흥행작

### 3-3. 투명화하는 가시성의 체제와 감시

금융자동화 시대의 “투명성”은 투명하게 응시할 수 있는 “가시성”의 문제이기도 하다.<sup>55)</sup> 자동화코너가 등장하기 이전까지 고객이 금융행위를 위해 은행을 찾는 절차는, 자신의 정보를 담은 문서를 은행 직원에게 제시하고 직원은 이를 근거로 직원만이 접근할 수 있는 은행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하여 고객이 요청한 금융행위를 대신 처리해주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금융자동화는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에서 열람 가능한 이용자 정보의 가시성을 높이는 혁신이었다. ATM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자신의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무인 기계에 삽입하여 정보 열람권을 획득한다. 고객들이 “스스로 간단한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꿈의 은행”으로서 무인 자동화코너가 고객들에게 이와 같은 투명성을 보장하는 방법은 “화면안내”였다.<sup>56)</sup> 자동화코너에서 고객이 직접 예금 신규개설, 현금카드 발급, 대출까지 받을 수 있는 “다이렉트 बैं킹” 서비스

---

〈사랑과 영혼〉이 컴퓨터 기반의 돈세탁 범죄 시도와 실명 거래 제도로 인한 그 실패를 다루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영화는 1980년대 후반 국내 영화시장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실시된 영화법 개정에서 국내 수입사를 거치지 않은 직접 배급을 하게 된 할리우드 배급사 UIP(United International Pictures)의 초기 배급 작품 중 하나였다. 한 문화평론가가 금융실명제 긴급명령의 한복판에서 향후 한국 실명 금융제도의 미래를 보여주는 작품일 수 있다고 언급한 이 영화는, 기실 같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맥락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진행된 국내 산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수입된 영화였던 것이다. 금융 투명성을 갖춘 미국사회를 극화하여 전시함으로써 이를 곧 도래할 국제적 기준으로서 제시하는 이 영화에서, 금융 범죄자에게 희생당한 주인공이 투명한 유령으로 묘사되는 것도 흥미로운 지점이다. 이형렬, 『금융실명제와 영화 〈사랑과 영혼〉』, 『월간 사회평론 길』 10월호, 1993, 190쪽.

55) “투명성”과 “가시성”에 대한 고전적인 논의로는 감시사회(surveillance society)를 이론화한 데이비드 라이언의 논의를 참조할 것. D. Lyon, *The Electronic Eye: The Rise of Surveillance Society*,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4.

56) 『손님 혼자 돈 찾고 동전교환 무인 은행점포 첫선』, 『동아일보』, 1990.7.20, 21면.

를 도입한 한 은행에 관련한 기사에서는 “고객이 무인화 점포에 설치된 영상단말기 화면을 손가락으로 조작하면서 은행직원과 화상으로 대화, 은행 업무를 즉석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통합 셀프뱅킹 시스템”으로 이 서비스를 설명하고 있다.<sup>57)</sup> 은행에서의 자동화된 이동체계를 보장하는 것은 이와 같은 시각화(visualization) 도구들이었던 것이다.

투명화된 금융자동화 시스템은 그 자체로 시각화 도구들의 총합이었다. 온라인 네트워크의 구축으로 극대화된 정보의 순환은 극대화된 가시성의 다른 말이기도 했다. <돈을 갖고 튀어라>에서 비리 정치인의 비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은행 시스템에 접속하는 해커들이나 <채널 식스나인>에서 비리 정치인의 비자금을 추적하는 해커-해적방송단원들, 그리고 <런어웨이>에서 국가전산망에의 해킹을 통해 자신을 추적하는 범죄 조직의 정체를 밝혀내는 주인공은 모두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아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 이들은 컴퓨터 조작 능력의 확보를 통해 비가시적인 정보를 가시화하는 것이며 컴퓨터 화면은 그와 같은 정보의 시각화를 표상하는 것이다. 즉, 이들의 활동은 컴퓨터 자동화 시대의 “투명성”이 단지 자금의 공개된 순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자의 투명한 감시창을 의미하는 것임을 말해준다. 컴퓨터 기반의 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데이터의 즉각성과 이동성을 위해 디지털화가 필수적이며, 이렇게 디지털화된 정보는 그에 관계된 개인들을 감시로부터 더욱 취약하게 만들기도 한다. 즉, 투명성은 개별 주체의 가시성에 관한 문제, 다시 말해 생명정치(biopolitics)적 문제라 할 수 있다.

은행감독원이 1991년부터 은행 경영 합리화를 위해 시행한 “현금자동 지급기(CD)· 현금자동입출금기(ATM) 활성화방안”은 무인 기계화 전포의 증가로 인해 현금 도난 사고 등이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폐쇄회로텔

57) 『무인점포서 대출·카드발급』, 『매일경제』, 1996.6.2, 1면.

레비전(CCTV) 설치를 의무화할 것이라 밝히고 있다.<sup>58)</sup>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무인 기계의 화면을 통해 정보를 가시화할 능력을 보장 받았지만, 이는 동시에 그들에 대한 은행의 가시성이 무인 촬영 설비를 통해 높아지는 과정이기도 했다. 금융자동화 서비스는 금융기관에 맡긴 자신의 정보를 감시하는 공간이자, 이를 열람하는 스스로를 금융기관의 감시체계 속에 맡기는 과정이었던 것이다.

1995년 영화 <런어웨이>는 금융 정보를 비롯해 개인정보가 자동화된 시스템 속으로 통합된 시대에 감시하는 능력, 그리고 감시당하지 않을 능력이 예측불허의 상황에서 개인이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기술임을 보여준다. 우연히 살인 사건을 목격한 주인공은 이를 전화로 경찰에 신고하지만, 오히려 그 신고 이후 범죄 집단의 표적이 되어 쫓기는 신세가 된다. 집과 직장이 노출되고 친구들과 조력자들에게 연락한 전화번호는 유출되고 만다. 흥미롭게도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범죄 집단에 대응하기 위한 주인공의 유일한 무기는 그의 컴퓨터 네트워크 활용 능력이다. 보 건복지부의 인트라넷을 해킹한 그는 자신을 마취시키기 위해 범죄자들이 사용한 약제의 이름과 그 약을 수입하는 제약회사를 검색한 후 그 범죄 집단의 두목이 제약회사의 대표와 동일 인물임을 알아낸다. 이를 알린 주인공은 이 제약회사 대표의 수사를 이끌어내지만, 마지막 시퀀스에 이르러 자신의 위치 정보를 지속적으로 유출, 제공한 것이 한 비리 형사였음을 알게 된다. 이와 같은 감시의 주고받음은 개인이 스스로 획득한 첨단 기술을 통해서 역으로 감시를 행할 때에야 비로소 감시에 대항할 능력이 생긴다는 점에서 비관적인 묘사에 가깝다.

다시 말해, 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에서 순환하는 디지털화된 정보는 주체가 자기계발을 통해 가시화하는 능력을 확보할 때에야 투명성을 띠

58) 『은행 무인 기계점포망 구축』, 『한겨레』, 1990.12.23, 4면.

게 되는 것이다. “키드 캡”이라 자칭하며 롤러블레이드를 타고 활보하는 〈키드캡〉(1993)의 아이들 역시 휴대용 비디오카메라를 통해 범죄 현장을 찍고 가시화시키는 능력을 과시한다. 롤러블레이드 위의 민첩하게 이동하는 신체들은 가시성의 범위를 확장하고 탐사하는 능력을 증진시킨다. 이것은 〈채널 식스나인〉의 해적방송단이 자신들의 해킹 능력을 통해 비리 정치인의 시각적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다시 전국적으로 유포, 가시화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은 맥락에 있다.

여기서 〈채널 식스나인〉의 정치인의 비리를 폭로하는 데 기여했던 컴퓨터 테크놀로지가 〈런어웨이〉에서는 비리 형사의 범죄를 위해 사용되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 영화에서 컴퓨터 테크놀로지 자체는 가치중립적이고 제어할 수 없는 것으로 묘사되는데, 이 지식의 획득은 공적 제어가 어려운 자유 시장의 영역 속에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 영화 속에서 이를 활용하는 이들은 독학으로 지식을 획득한 자립적인 개인들이다.

#### 3-4. 비대면적 관계의 확대와 익명성

금융자동화가 1990년대 소비의 영역에서 가져온 큰 변화는 이른바 “홈쇼핑 서비스”라 불리는 통신판매 제도의 확산이다. 편지나 전화로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주문하는 거래방식은 금융자동화 이전에도 존재해왔지만, 온라인 전산 네트워크의 확대와 자동화 기술의 확산을 통해 이 시기에 급격한 성장을 이루게 된 것이다. 가령 1980년대 후반에 대형 백화점을 중심으로 확대되던 통신판매제는 전산시스템의 도입이나 비디오텍스(videotex)를 이용한 주문 등 초기적인 형태의 자동화를 모색했으나, 결제방식에 있어서 배달원에게 지급해야 하거나 직접 은행에서 해당 업

체의 계좌에 입금하는 형태를 띠었다.<sup>59)</sup> 여기에 신용카드 정보 입력을 통한 온라인 결제 방식이 도입된 것은 1989년 8월 교보문고 환은신용카드(비자카드)가 한국데이터통신 주식회사(데이콤)와 업무제휴를 체결하면서부터이다. 데이콤은 가정용 컴퓨터를 이용한 가상단말기(virtual terminal) 기반의 화상통신 서비스(이하 PC통신)<sup>60)</sup>인 “천리안 II”를 통해 서점, 백화점, 공연 예매처 및 여행사의 온라인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sup>61)</sup> 이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상거래는 점차 소비자들에게도 편리한 서비스로 인식되기 시작하여 1992년 4월 데이콤이 조사 분석한 “천리안 주문·예약서비스 이용실태” 보고서에는 조사기간 3개월 사이에 이용자가 2배 이상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했다.<sup>62)</sup>

홈쇼핑 서비스의 보다 가파른 성장을 가져온 것은 종합유선방송(cable television, 이하 케이블TV)에 홈쇼핑 채널이 허용되면서부터라 할 수 있다. 1995년 전국적으로 개시된 케이블TV에 홈쇼핑 채널이 추가된 것은 “하이쇼핑”과 “HSTV” 등 2개 채널이 그해 8월부터의 시범방송을 거쳐 10월부터 본방송 체제에 들어서면서부터이다.<sup>63)</sup> 홈쇼핑 채널 출범 1년을 맞아 이듬해 8월에 작성된 한 기획기사에 따르면 1년 사이에 홈쇼핑 채널 이용고객수가 10만여 명, 시장규모가 1천억 원대에 달하게 되었다고 하며, 하루 평균 주문건수 1천~1천3백 건, 일일 평균 매출 5천만~6천만

59) 「편지나 전화로 원하는 물품 주문 “홈 쇼핑” 크게 늘어」, 『동아일보』, 1988.7.14, 5면.

60) 국내 최초의 가상단말기 기반 컴퓨터 네트워크 상용 서비스였던 “천리안”은 1983년에 시작되었다. “하이텔,” “나우누리,” “유니텔” 등 유사한 서비스들이 1990년대 초중반 큰 인기를 얻었으며, 지금과 같은 월드와이드웹(world wide web) 기반의 인터넷 서비스가 보급된 것은 1990년대 중후반부터이다.

61) 「다양화사회 (32) 컴퓨터 안방 생활동반자로 각광」, 『동아일보』, 1989.11.25, 19면.

62) 「컴퓨터 주문·예약 크게 늘다」, 『한겨레』, 1992.4.23, 8면.

63) 「홈쇼핑 케이블 TV 오늘부터 시험방송 채널 39.45」, 『매일경제』, 1995.8.1, 11면; 「홈쇼핑 만화 기독교 문화예술 바둑 6개 채널 케이블TV 내달 “가동”」, 『동아일보』, 1995.9.29, 35면.

원선으로 집계되었다고 한다.<sup>64)</sup> 그 이듬해에는 전년 동월 대비 2개 채널의 주문판매액이 각 5배, 7.5배 증가하여 전체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10배 가까이 성장했다고 한다.<sup>65)</sup>

이와 같은 비대면 상품거래 방식의 성장은 은행에서 ATM 등 자동화 코너의 등장이 창구 직원을 대하지 않고 은행 업무를 보는 “비인격화의 제도화”를 가져왔듯이 비인격적 관계의 제도적 성장을 촉진시켰다. 신용카드의 온라인 전산 조회 네트워크의 확산과 PC통신, 케이블TV 등 가정으로 들어온 시각화 장치들은 거래의 투명성과 신속성, 그리고 소비자의 가시성을 높였다. 그러나 동시에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의 비대면, 비인격적 관계의 증가는 상호적인 시선의 주고받음이 생략된, 익명적 관계가 이 새로운 거래방식이 표상하는 제도임을 말해준다.

1990년대 한국영화에서 익명성을 다룬 대표적인 작품으로서 〈접속〉(1997)은 이러한 측면에서 이른바 ‘익명적 타자’와의 관계에 대한 묘사라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 라디오 방송PD인 동현(한석규 분)은 “여인2”라는 PC통신 아이디를 가진 사람으로부터 신청된 노래에서 신청자가 자신의 옛 연인일 것이라는 추측을 하게 된다. 신청자인 수현(전도연 분)은 홈쇼핑 채널의 전화상담원으로서, 동현과 개인적으로 모르는 사이이지만 PC통신 대화방에서 동현 옛 연인의 친구로 행세한다. 이후 수현의 사실 고백과 사과를 거치면서 가까워진 두 사람은 오프라인에서의 만남을 약속하지만 상당 시간 동안 엇갈림을 반복한 끝에 영화의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서로의 얼굴을 확인한다.

이 영화에서 익명적인 것은 이들의 만남처럼 로맨틱한 관계에서만 아니라 그들의 경제활동 일상 속에 편재해 있다. 동현이 하는 일은 선곡

64) 『TV홈쇼핑 출범1년...고객 10만명』, 『매일경제』, 1996.8.27, 47면.

65) 『TV홈쇼핑 1년새 10배성장』, 『매일경제』, 1997.5.7, 19면.



한 음악과 진행자의 대본 내용을 임의의 청취자들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전송하는 것으로, 청취자들이 곡을 신청하기 위해 그에게 연락을 취하는 방법은 다수 존재하지만, 수현과의 온라인 대화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청취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거나 속일 수 있는 익명의 존재들이다. 홈쇼핑 전화상담원으로서 수현의 역할 역시 매일 다수의 익명 고객들을 상대해야 하는 것이다. 동현이 20분이 넘는 대곡을 틀어서 청취율과 광고 수주에 민감한 방송사측의 심기를 거스르는 것을 그의 동료들은 이해해주지 못하며, 고객이 흠모하는 상대에게 보낼 선물을 함께 골라주며 돕는 수현의 행동은 오지랖이 넓고 상품배송을 곤란하게 만드는 민폐로 인식된다. 두 사람 모두 각자의 고객들과 필요 이상의 친밀하고 깊은 의사소통을 하지 말 것이 요구된다. 라디오 방송과 홈쇼핑 채널의 전자기파는 이들에게 진실된 관계를 추구할 여지를 주지 않는다. 두 사람의 관계를 잇는 벨벳언더그라운드의 낡은 비닐 레코드(LP)는 과거에 대한 아날로그적 향수를 자극하며 이러한 현실과 대조를 이룬다. 익명의 두 사람을 실어 나르는 지하철의 순환은 그들의 직장에도 이미 존재하는 전자적 순환의 확장에 가깝다. 아직 서로의 얼굴을 모르는 동현과 수현은 지하철의 같은 칸에 타지만 끝내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고 엇갈리고 만다. 탈산업적 지식경제의 표준화된 부품으로서 두 사람의 신체는 익명적이고 자동화된 순환 속에서 서로를 스쳐지나갈 뿐이다. 그들의 의사소통은 오로지 무선호출기(삐삐)와 자동응답기의 전자신호로 수집되고 기억될 뿐이다.

그러나 금융자동화 시대의 익명성은 한편으로는 실현 불가능한 목표이기도 했다. 수현은 PC통신 아이디 “여인2”를 통해 익명성에 대한 대중적 태도를 드러낸다. 19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에 확산된 PC통신은 젊은 이용자들에게 익명성을 부여했으며, 그들은 자신의 실제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고도 가상공간의 접속권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그와 같은 익명적 가상공간은 마치 그 속에 참여한 개인들을 비가시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앞서 살펴 본 PC통신 홈쇼핑 서비스의 등장에서 볼 수 있듯 실제로는 새로운 경제활동 공간이기도 했던 그곳에서 하나의 ‘금융 정보’로서 개인의 정체성은 더 뚜렷하게 가시화되는 것이기도 했다. 익명적 아이디를 쓰는 수현은 홈쇼핑 서비스의 비대면적 창구 직원으로서 익명적 삶을 살고 있지만, 그녀 자신은 고객의 주소와 결제 정보, 어느 고객이 사모하는 여성의 주소, 그리고 그 여성이 그의 선물을 받으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까지 자세히 알고 바라보는 시야를 갖고 있기도 한 것이다.

#### 4. 나가며

본 연구는 “자동화” 담론이 한국사회에서 불안과 희망의 양가적 전망을 갖게 된 것이 “금융자동화” 기술의 도입과 확산이라는 역사적 과정을 거치면서부터였음을 살펴보았다. 1980년대까지의 자동화가 인간의 이동성에 규율의 방식으로 기계적 흐름을 결합하는 것이었다면,<sup>66)</sup>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비인간, 비인격의 금융자본이 컴퓨터화된 전자적 순환을 통해 인간을 전 지구적 정보 네트워크 속의 데이터로 순환시키는 가시성의 체계로 발전한 것이다.

“4차 산업혁명과 금융혁신”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2018 서울파이낸스 포럼”에서 한국금융연구원의 한 발표자는 “스마트폰에 금융의 모든 것

66) 김한상, 『테크노피아-1980년대 자동화 담론과 새로운 이동체계』, 『역사비평』 통권 113호, 2015년 겨울, 241-246쪽.

이 들어있다”며 이를 4차 산업혁명에 적응하기 위해 명심해야할 점으로 강조했다.<sup>67)</sup> 각종 은행 업무와 신용카드 관련 업무를 비롯하여 온라인 상거래와 그 자체 유가증권으로서의 기능에 이르기까지 이용자가 행하는 일체의 경제적 활동을 매개할 수 있는 스마트폰은 1990년대 금융자동화가 제시한 투명성을 통한 정보의 가시성 제고의 극단을 보여준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처럼 극대화된 가시성은 스마트폰을 통한 위치 정보, 생체 정보 수집이나 구글, 페이스북 등 거대 인터넷 기업들의 빅데이터 수집 등에서 나타나듯 이용자 자신의 가시성이 극대화되어 감시로부터의 방어에 더 취약해지는 문제점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스마트폰을 비롯한 자동화 기계들은 이제 24시간 인간의 신체에 부착되어 있는 보철 장치로서, 해러웨이가 통찰한 바와 같이 인간의 피부 바깥으로 확장된 신체의 역할을 하고 있다.<sup>68)</sup> 이것은 해방의 가능성을 여는 것인 동시에 극단적 감시와 통제의 가능성을 여는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익숙한 해방과 불안의 양가적 정동이 시작된 것이 1990년대라 볼 수 있지 않을까? 금융자동화 시대의 자동화는 더 이상 1980년대와 같이 경이와 희열의 대상으로, 혹은 그 움직임에 적응해야할 외부의 장치로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투명하게 전환된 개개인의 신체 속으로 투과해 들어오는 무엇이 된 것이 아닐까?

67) 『2018 서울파이낸스 포럼 4차산업혁명과 금융혁신...쟁점과 키워드, ‘말말말』, 『서울파이낸스』, 2018.5.29.

68) Donna Haraway, *Simians, Cyborgs, and Women*, New York and Abingdon: Routledge, 1991, p.178.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경향신문』, 『뉴시스』, 『동아일보』, 『매일경제』, 『문화일보』, 『서울파이낸스』, 『연합뉴스』, 『이데일리』, 『제민일보』,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경제』, 『The New York Times』

### 2. 논문과 단행본

김한상, 『‘테크노피아’-1980년대 자동화 담론과 새로운 이동체계』, 『역사비평』 통권 113호(2015년 겨울호), 2015, 234-259쪽.

이형렬, 『금융실명제와 영화 〈사랑과 영혼〉』, 『월간 사회평론 길』 10월호, 1993, 190쪽.  
조원광, 『한국 소비사회의 등장과 미시권력의 변화』, 『한국사회학』 제48집 제1호, 2014, 133-172쪽.

주은우, 『금지의 명령에서 향유의 명령으로-자본주의와 한국사회의 문화변동에 대한 해석적 시론』, 『한국사회학』 제48집 제5호, 2014, 59-97쪽.

표학길, 『진정한 국제화에 사활걸린 한국경제-금융실명제와 연계된 국제화』, 『한국논단』 11월호, 1993, 51-54쪽.

학원사 편집국, 『우주시대의 과학』, 학원사, 1959.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IT용어사전, <http://terms.tta.or.kr/>

De Wit, Dirk, *The Shaping of Automation*, Hilversum: Verloren, 1994.

Diebold, John, *Automation: The Advent of the Automatic Factory*, New York: Van Nostrand, 1952.

Haraway, Donna, *Simians, Cyborgs, and Women*, New York and Abingdon: Routledge, 1991.

Hayward, Mark, “ATMs, Teleprompters and Photobooths: A Short History of Neoliberal Optics”, In *New Formations* 80/81, 2013, pp.194-208.

Lyon, David, *The Electronic Eye: The Rise of Surveillance Society*,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4.

Terborgh, George, *The Automation Hysteria*,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1965.

U.S. Congress, “Automation and Technological Change”, In *Hearings, Subcommittee*

*on Economic Stabilization of the Joint Committee on the Economic Report, 84th Cong. 1st Sess.*, Washington: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55.

Pardo-Guerra, Juan Pablo, “Financial Automation, Past, Present, and Future”, In *The Oxford Handbook of the Sociology of Finan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pp.567-586.

ProQuest Historical Newspapers, *The New York Times* <http://search.proquest.com/hnpn-nyorktimes/>

## Abstract

The Cultural Significance of “Financial Automation” in 1990s South Korea  
— In the Context of Neoliberal Globalization and Financial Transparency

Kim, Han-Sang(Ajou University)

This paper defines the turning point of the “automation” discourse in South Korea as the 1990s, especially when the discourse and technologies of “financial automation” spread in the society, by analyzing the popular narratives in the media at the time. The “automation” discourse previously centered on a rather playful imagination of a hopeful future but, at this turn, connected with a sense of anxiety over an inhuman and cold-hearted dystopia.

To examine this, the paper traces the trajectory of the “automation” discourses in South Korea and, based on that historicization, investigates the representations of financial automation in the films of the 1990s.

It explores the transition from the 1980s when the automation technology and its mobility system were embraced as the objects of amusement and admiration in a consumer utopia to the 1990s when the financial transparency became the spirit of the times in that neoliberal globalization visualized the individual’s everyday life in the flow of financial automation.

(Keywords: automation, financial automation, transparency, visibility, anonymity)

논문투고일 : 2018년 7월 14일  
심사완료일 : 2018년 7월 29일  
수정완료일 : 2018년 8월 5일  
게재확정일 : 2018년 8월 9일